

2024. 11. 25

KIWOOM ESG Weekly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시황·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Weekly Issue

BNEF, 기후 변화가 미국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5 가지 요인

- ✓ BloombergNEF 에 따르면, 인위적인 배출로 인해 전세계적인 기상 패턴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상 교란은 에너지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 또한, 기후변화는 난방 및 냉방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극심한 기후 변화는 인프라를 파괴하고 전력 수요 급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 BNEF 는 기상패턴의 변화로 나타나는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의 5 가지 변화요인을 분석
 - ✓ 겨울철 온난화로 인한 가스 사용 감소 : 미국 전역의 겨울 기온은 90 년대에 비해 지난 10 년 간 2% 상승. 이에 따라, 주거 및 상업 난방 수요가 감소하면서 천연가스 재고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 평균적으로 겨울 기온이 1 도 상승하면, 연간 가스 배출은 평균 6% 감소. 한편, 겨울철 온난화로 인해 가스에 대한 재고 축적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가스 생산자는 수익률을 찾기 위해 수출로 시선을 돌림
 - ✓ 여름철 극심한 더위로 인한 전력망 부담 : 연간 냉방 온도 일수는 90 년대 평균에 비해 17% 증가했으며, 2024년 여름은 역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되었다. 극심한 여름철 더위로 인해 에어컨 가동률은 증가하며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전 위험도 증가.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화석연료 수요가 증가하며 에너지 전환이 늦춰지게 되는 효과로 이어짐
 - ✓ 북서부 지역의 건조화로 인한 수력발전 위축 : 북서부의 여름 강수량은 90 년대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약 26% 감소하며 농업 활동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주를 이루는 북서부 지역의 에너지 공급에도 차질을 일으키는 상황. 강수량이 부족할 때 저수지는 눈이 녹아 수위를 견고하게 유지하였으나, 해당 지역에서의 겨울철 강수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0.6%씩 점진적 감소세. 해당 추세가 지속된다면, 북서부 지역의 수력 발전이 감소하여 유틸리티 및 전력생산업체의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 ✓ 산불 확대로 인한 주택과 인프라 시설 위협 : 화재에 적합한 기상 조건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국 산불로 인한 연간 소실 면적은 90년대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특히, 미국 서부에서 산불 관련 피해가 급증했으며, 남서부 지역은 지난 50년 동안 연간 화재 발생 일수가 1 달 가량 증가. 화재 발생 가능성성이 높은 지역에서의 전력 유틸리티는 전력망 구축 및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화재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필요
 - ✓ 허리케인으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인프라 타격 : 북대서양 허리케인은 1980년 이후 미국에 1 조 3,000 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기상 현상. 특히, 멕시코만의 해상 석유 및 가스 생산에 위험을 초래하며, 해당 지역의 생산량 감소는 대부분 90년대 이후 발생한 주요 허리케인 재해와 관련이 있음
 - ✓ 출처 : <https://about.bnef.com/blog/five-ways-climate-change-is-remaking-us-energy-mar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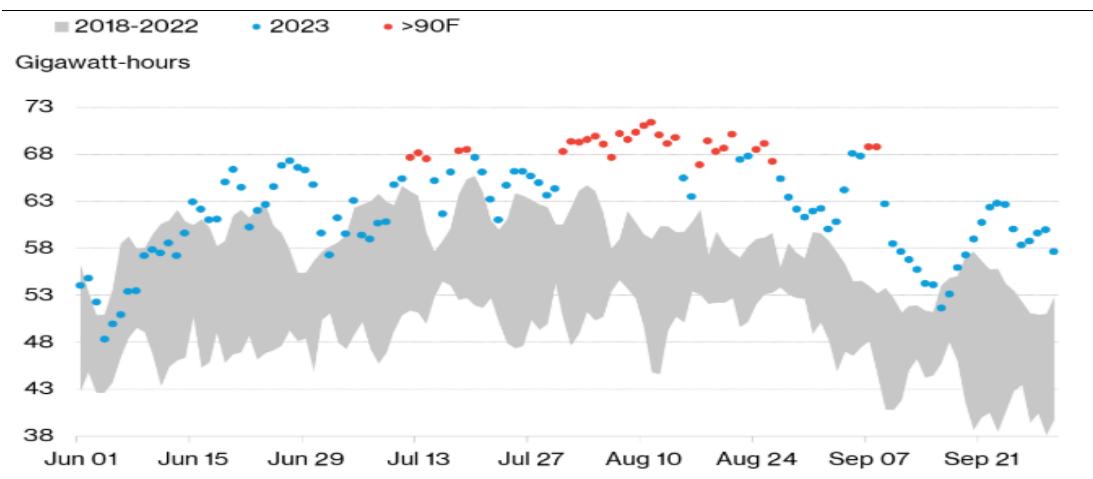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 월 22 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차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의 부당한 알현이나 간접, 임의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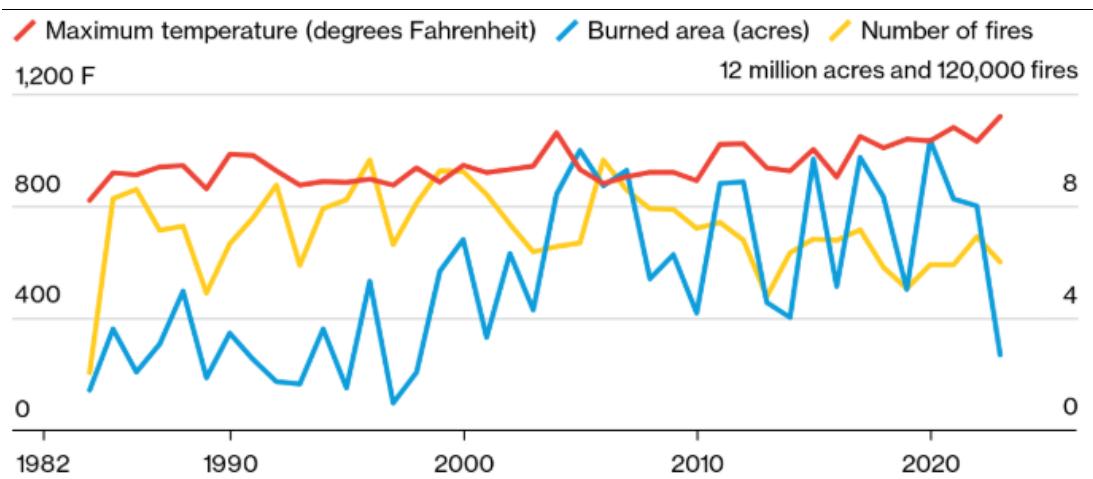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을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는 모의으로 이루어져 본래 저시 배포 저수 페리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치외하는 것으로서는 관련법에 이어하여 미·현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텍사스 지역의 일일 평균 전력 수요 : 기온이 증가할 때 텍사스 전력 수요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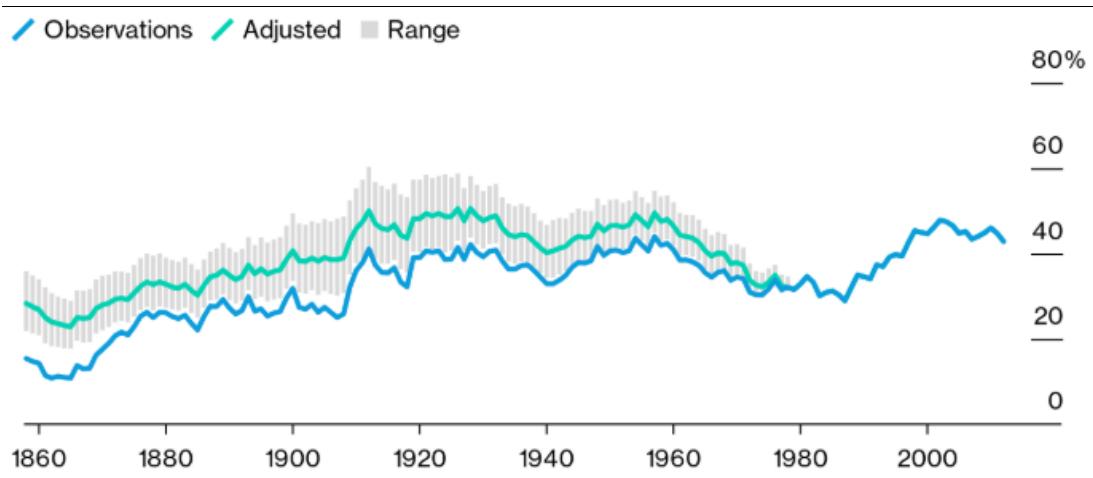
자료: BNEF,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내 화재로 인한 면적과 화재 수, 최대 온도 추이 : 미국 내 화재는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지는 추세



자료: BNEF,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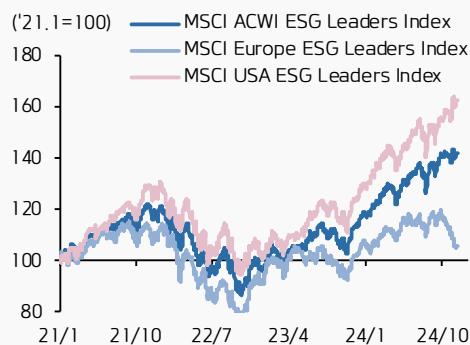
1980년대 이후 북대서양 내 메이저 허리케인이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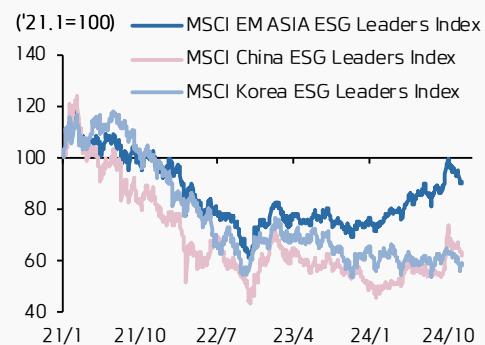
자료: BNEF,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ESG 주요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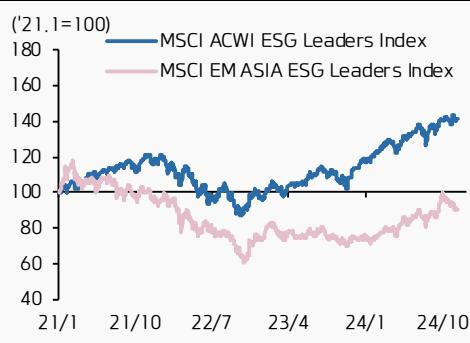
선진국 MSCI ESG Leaders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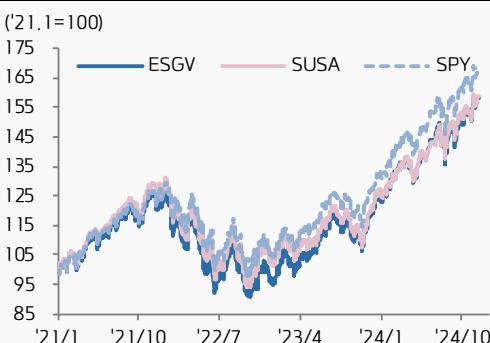
신중국 MSCI ESG Leaders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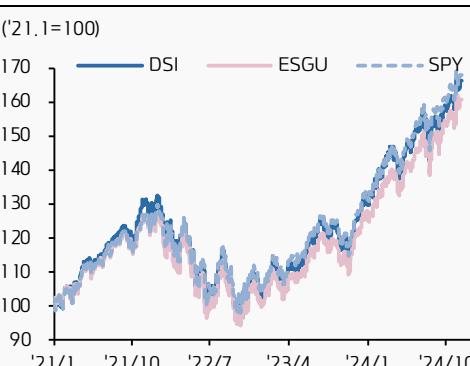
글로벌과 이머징 아시아 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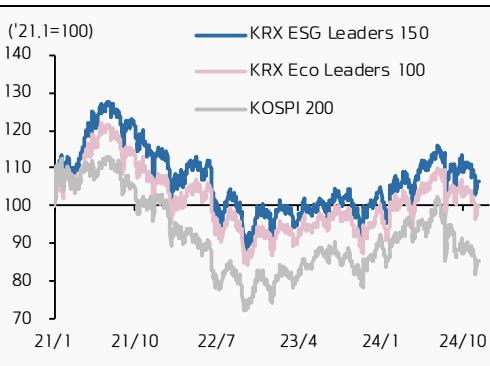
주요 ESG ETF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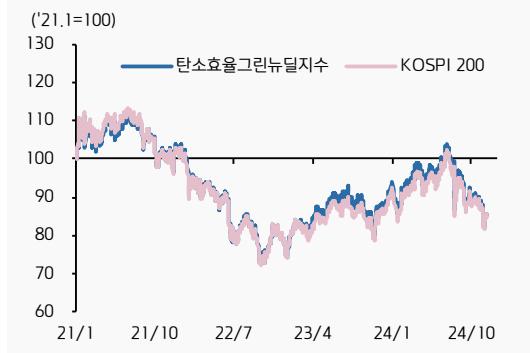
주요 ESG ETF 가격



KRX ESG 관련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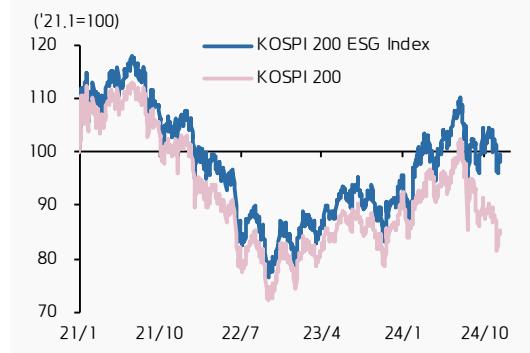


탄소효율그린뉴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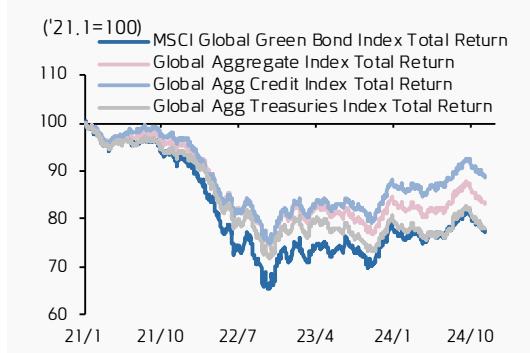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200 ESG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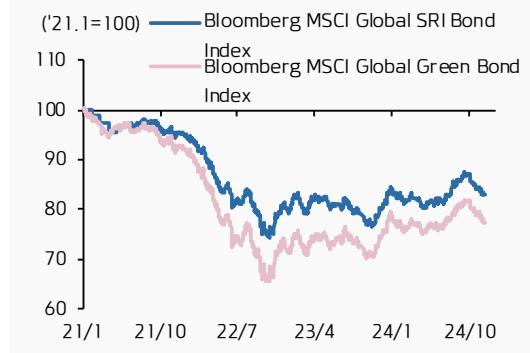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채권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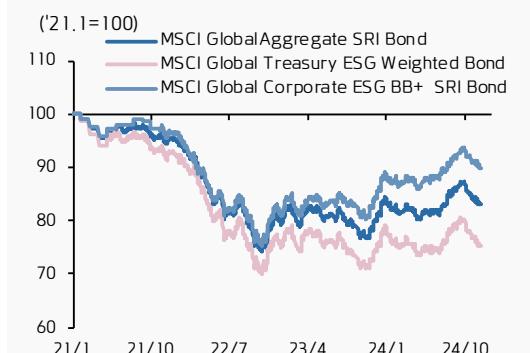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책임투자 / 그린본드 채권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MSCI Global SRI 국채 및 회사채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MSCI Global ESG 회사채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